

[98 JCC (예수공동체축제: Jesus Community Celebration)]

특별새벽기도 /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6)

기도의 비밀

[본문 요한복음 14:7-15]

하용조 목사/ 페이지수: 7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번 20일 새벽기도의 주제는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험한 이 세상, 소망이 없는 이 세상, 살아도 살아도 남는 것이 아무 것도 없는 세상, 병든 것과 좌절과 실패와 절망 밖에 남는 것이 없는 이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소망이 없는 세상을 버리지 말고 세상 가운데서 살며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하나씩 가르치셨습니다.

천국 누리며 사는 성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 주셨던 메시지는 ‘한알의 밀알’입니다. 한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지만 죽음을 거부한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헌신과 희생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쉴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쉴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매일 교회에 나오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변합니다. 과거에 살던 방법대로 살면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평생을 살아도 여러분 주변은 변하지 않습니다. 성탄절인 어제 저의 일과를 돌아보았더니 새벽에 나와 하루종일 예배와 집회를 하고 집에 돌아가니 저녁 10시가 넘었습니다.

그래도 얼마나 기뻐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천국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천국입니다. 내 실력과 수준으로는 살 수 없는 삶은 사는 것, 땀 흘리고 수고하지만 피곤치 않고 기쁘게 사는 곳이 천국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피와 삶을 나누는 삶입니다.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도,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도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목적이 없는 사람을 방황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헛되게 분주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낭비하고 있는 삶입니다. 게으르게 낭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시간도, 한 푼의 돈도 낭비하지 마시고 사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살면 세상이 변할 줄 믿습니다.

주님주신 은혜로 사는 삶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 씻어줄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까지도 발을 씻어주십니다. 예수님은 선생님에도 불구하고 발을 씻기시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섬김을 받는 사람이 되지 말고 섬기는 사람이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중요하지 않고, 화제가 '나'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내 문제가 문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문제를 돕고 섬기는 사람, 꾸는 사람이 아니라 꾸어주는 사람, 대접받는 사람이 아니고 대접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복음의 배반자가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항상 배신자를 만납니다. 그 사람이 바로 가룟유다입니다. 복음의 사건에는 배신이 있고, 믿음은 기근을 만납니다. 기근을 만날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배신의 고통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실수를 봅니다. 예수를 세 번씩이나 부인하는 베드로를 통하여 인간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신앙고백은 열정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신앙고백과 삶은 다릅니다. 열정이 앞서서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신앙생활은 나의 믿음과 열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천국을 약속하시는 영원한 처소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근심 걱정없이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게 사는 이유는 우리에게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길, 진리, 생명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천국을 어떻게 갈 수 있느냐고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천국에 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며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다. 나는 길중에 하나가 아니며 길을 가리키는 자도 아닌 내가 곧 길이고 진리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학교에서는 진리를 가르칩니다, 세상의 위대한 철학자나 교사는 진리를 가르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리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길이고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주는 자가 아니라 자신이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가면 생명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우리의 지식이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이 말은 깊이 묵상해야만 그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하나님을 알았으리라’라는 말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아는 것과 보는 것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보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고 있다가 환상을 보면 확신하게 됩니다. 확신이 없을 때에는 그저 믿습니다. 그러나 환상을 보면 꽃을 보듯이 확실히 알게 됩니다. 아는 단계를 지나면 보게 됩니다. 안

다는 것은 곧 본다는 것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안다는 것은 머리에서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머리에서 이해하고 끝나는 것은 참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가슴으로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을 때 ‘머리에 와 달았다’고 말하지 않고 ‘가슴에 와 달았다’고 말합니다. 머리에 와 달는 것은 행동하게 하지 않지만 가슴에 와 달는 변화가 일어나게 합니다. 언어라는 것은 가슴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설교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것이며 사랑도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것입니다. 머리에서 나와서 하는 말은 머리를 아프게 하고 가슴에서 나와서 하는 말은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은 가슴을 아프게 하는 말입니다.

본문에서 ‘본다’는 말은 머리의 개념이 아니라 가슴의 개념입니다. 빌립은 ‘아버지를 보여 달라’고 말하자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9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은 지금까지와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나를 아는 자는 너희가 나를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빌립의 말에 ‘이미 보았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손에 쥐고도 알지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비극입니다. 기도에 실패하는 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저의 돌아가신 장인어른이 안경을 끼지 않으면 책을 읽지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안경을 끼시고도 ‘내 안경이 어디에 있느냐’ 찾습니다. 우리는 가지고 있으면서도 알지 못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예수님이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계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로 일치되었다는 말입니다. 기도의 비밀은 ‘일치’에 있습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비슷한 것이 아니고 '하나'이며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각 속에는 철저하게 조금도 의심없이 아버지와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조금도 의심이 없었습니다.

고기와 떡을 나누어 주기 전에 '아버지여, 이미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하 니이다'라는 말은 이미 기도가 응답된 것을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믿음안에는 하나됨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니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을 얼마나 확실히 믿는지가 바로 기도의 열쇠입니다. 믿음의 열쇠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까?

이것을 확실히 믿는 자에게서는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알지 못했고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박혀 죽을 때까지 믿지 못했습니다.

저의 오늘 이 설교도 여러분에게 믿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도, 승천하시는 것을 보고서도 믿지 못했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에야 제자들은 믿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은 씨입니다. 씨가 뿌려진다고 해도 당장에 열매를 볼수는 없습니다. 그 씨앗 위에 비가 내리고 바람도 불고 빛도 받아서 적당한 온도가 주어질 때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기름부으심이 있을 때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도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믿음과 화합하지 않았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여러시간 동안 열심히 기도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전기 밥솥에 쌀을 넣고 버튼을 눌렀다고 생각하고 1시간이 지난 후에 먹기 위해 열었는데 생쌀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생쌀은 그

대로 먹을 수 없습니다. 쌀만 놓고 기다린다고 밥이 되지 않듯이 믿음의 기도
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기도의 비밀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안에 계시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강조하십니다.

11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인 것을 믿지 못하겠거든 지금까지 행한 기적
을 보고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갈릴리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하늘
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세상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으로 가라고 하신 이유는 아버지
께서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2
절을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보다 더 큰일도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기 어려
운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믿어지지 않지만 믿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
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믿어야 합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
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이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이 말씀대로 믿고 이 말씀을
근거로 삼아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약속하신대로 시행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비밀입니다. 기도는 그저 ‘믿습니다’라고 해서 응답되는 것이 아
닙니다. 시간이 기도응답의 열쇠가 아닙니다. 짧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의 상식과 이성과 경험이 믿지 못하
게 유혹할지라도 어린아이와 같이 믿고 기도하면 기도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제 아내가 터키에서 중보기도를 했을 때 앓은뱅이가 일어났습니다. 앓은뱅이를
보고 당황하고 놀라서 그 발을 붙잡고 영영 울면서 ‘한번만 살려주세요’라고 기
도했더니 앓은뱅이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믿음에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십시오. 어린아
이를 높은 곳에 세워놓고 밑에서 엄마가 뛰어 내리라고 하면 어린아이는 아무런

갈등이 없이 뛰어내립니다. 아이들은 ‘혹시 엄마가 나를 받아주지 않으면 어떡하지?’라고 갈등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른들이나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어려운 것은 자주 속아보았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아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데 있습니다. 내 이익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건강해야 할 이유도,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어야 할 이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14 ~ 15절을 보십시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내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와 같이 믿고 구하십시오.

* 출처 - 온누리신문 (<http://news.onnuri.or.kr>)